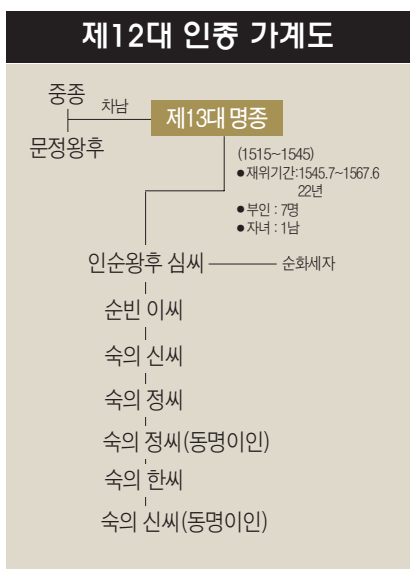


철의여인 문정왕후 그늘 아래 ‘눈물의 일생’



13대 명종과 인순왕후 - 강릉

명종 1534~1567 (34세)
재위 1545.7(12세)~1567.6(34세)



원칙대로 한다면 태종의 명종은 강태릉이 되어야 한다. 태종은 왕비 신분인 문정왕후의 능이고 강릉은 임금인 명종의 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의여인을 어머니로 둔 탓에 명종은 죽어서도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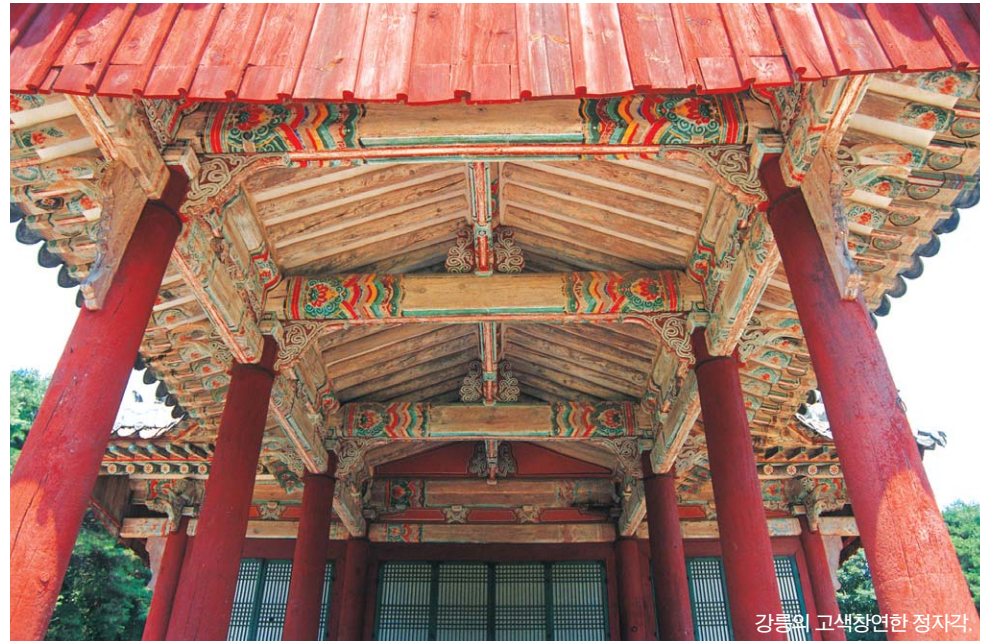
태릉은 서울 강북 지역의 명소다. 휴일이면 능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인파가 부산하다. 연간 30만 명이 방문한다. 좁은 주차장이 미어터져 도로까지 차들이 점령한다. 주변 시설들도 태릉의 이름만 빌려 쓴다. 태릉선수촌, 태릉 국제종합스키장, 태릉 푸른동산, 태릉 컨트리클럽, 심지어 태릉갈비까지. 강릉 바로 곁에 있는 스키에트장까지 태릉 스키에트장이자. 살아서는 곤룡포 입고도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고 반팔로 훈계를 들더니 죽어서도 어머니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

요즘 사람들은 태릉 곁에 강릉이 있는 줄 잘 모른다. 문정왕후의 호령이 지금까지 통하는 지 강릉은 비공개 능이다. 화장실을 짓고 경비 인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는 딱딱한 안내 쪽지가 태릉 입구 안내판에 붙어 있다. 그래서 강릉은 조용하고 한적하다. 1km 떨어진 태릉에서 어머니의 호령이 들릴까봐 숨죽이고 있는 것 같다.

세까지 8년 동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아야 했다. 성년이 된 후에도 수렴만 없어져서 어머니의 조종을 벗어나지 못했다. 22년간 재위했으나 어머니의 압력에 벗어난 시간은 채 2년이 못됐다. 어머니가 죽은 후 2년 정도 친정을 한 셈이다. 그러다 그도 죽었다. 명종조는 유난히 자연재해, 도적떼의 출몰 등에 관한 기록이 많다. 그 원인과 책임을 문정왕후의 국정문란으로 몰아간다.

명종 17년(1562) 음력4월, 경기도 여주와 전라도 진안에 서리가 내렸다. 사관은 이에 대해 기록하기를, '4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다. 아래에서 인사가 잘못되면 위에서 천변이 반응하는 법이다. 날마다 도모하고 의논하는 것들이 나라를 그르치고 임금을 그르치는 계책이니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명종 9년(1554)에 올라온 상소에는, '홍년에 백성은 죽어가는 데 승들은 손발도 까닥 않고 배를 두드리며 앉아 있습니다. 백관의 녹봉은 줄였어도 선종, 교종 등 불교에 퍼붓는 돈은 줄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급하지 않은 일을 정지하여 홍년을 구제해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명종은, 국고가 고갈되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니 폐단을 제거하라



강릉의 고색창연한 정자각



강릉 정자각 문살

22년 재임기간 중 문정왕후 사후 2년만 친정 펼쳐 자연재해·도적떼 출몰·을묘왜변 등으로 시련 겪어

명종은 중종의 둘째 아들로 제2제비 문정왕후에게서 태어났다. 인종이 죽자 12세인 경원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명종이다. 이복형 인종은 이를 그대로 착하고 어린 임금이었다. 왕위를 이복동생에게 전위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복잡한 정쟁을 정리하고 자신이 낳은 아들을 왕좌에 앉히려는 계보 문정왕후의 간절한 소망까지 이룬 것이다.

명종은 문정왕후가 35세에 낳은 아들이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늦은 출산이다. 그녀가 명종을 낳았을 때 중종의 제1제비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은 이미 20세였다. 따라서 명종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인종은 후사 없이 31세로 승하했다. 그래서 문정왕후의 인종 독살설은 힘을 받는다.

그러나 명종에겐 불행의 시간, 눈물의 세월이었다. 묘호를 짓는 이가 명종(明宗)의 속뜻이 명종(鳴宗)임을 암시한 것일까. 여장부풍의 괄괄한 어머니의 호령, 을사사화, 양재역 벼서사건, 임궽정의 출현, 을묘왜변 등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세월이었다. 7명의 부인을 두었으나 인순왕후 심씨에게서 겨우 아들 하나 낳았을 뿐이다. 아들 순화세자마저 13세에 요절했다. 왕후에게서 난 자식이 대를 잇는 맥이 끊어졌다.

명종은 12세로 즉위했기 때문에 성년이 되는 20

고 한다. 그러나 불교가 국고를 허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사관은, '폐단을 제거하려는 본부는 옳지만 양종이 허비하는 것은 알지 못했거나 한탄스럽다'라고 적고 있다. 양종 부활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문정왕후의 승불을 비난하는 일면이다.

조선 3대 도둑(혹은 3대 의적)은 홍길동, 임궽정, 장길산이다. 그중 임궽정은 명종 때 활동한 인물이다. 임궽정은 양주의 백성 출신이다. 도적떼의 두령들을 끌어 모아 재물을 약탈하고 관군을 괴롭혔다. 임궽정의 무리는 황해도, 경기도 등 전국 5도를 누비며 1559년부터 1562년까지 강탈과 노략질을 감행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는 의적으로 통했다. 그들 집으로 다니는 관군을 오히려 미워했다. 관아를 습격하여 창고를 털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적으로 둔갑했다. 백성들은 그들을 숨겨주거나 달아나도록 도와주었다. 임궽정은 체포령이 내린 지 3년 만에 황해도 토포사 남치근과 강원도 토포사 김세한에게 붙잡혔다. 체포된 지 15일 만에 처형됐다. 1562년 정월, 명종 18년 때 일이다.

명종실록도 그들을 은근히 감싸고 있다. '나라에 선장이 없으면 교화가 밝지 못하다. 재상이 멋대로 욕심을 채우고 수령이 백성을 학대하여 살을 깎고

뼈를 발리던 고향이 다 말라버린다. 수족을 둘 데 없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아침저녁거리가 없어 목숨을 연명하고자 도둑이 되었다. 그들이 도둑이 된 것은 왕정의 잘못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은 당시 사람들이 임궽정을 단순한 도적의 괴수로 여기지 않고 민심을 대변하는 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훗날까지 무수한 설화, 소설, 드라마,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익은 <삼화사설>에서 임궽정을 조선의 3대 도적이자 규정했다. 평민과 몰락한 양반에게는 의적으로, 양반에게는 도적으로 평가되었다.

다사다난했던 명종의 처세, 어머니가 죽자 드디어 글레에서 벗어난 명종은 권력을 농단하던 윤원형 일

파를 제거하고 보우를 유배 보내고 즐기게 상소를 올려 괴롭히던 교종, 선종을 폐지했다. 자신의 처세를 펼쳐보려고 인간됨을 쓰지만 채 2년도 못돼 34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했다. 지리산 자락에서 후회들을 지도하며 한 번도 조정에 나와 벼슬을 하지 않았던 영남 사림의 거두 남명 조식은 명종의 승하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심회를 읊었다.

임동에 배운 일고 암혈에 눈비 맞아 구름진 별귀도 편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진다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강릉은 조선 13대 명종(1534-1567)과 인순왕후(1532-1575) 심씨의 능이다. 어머니 문정왕후릉에서 1km 떨어진 동쪽 산줄기에 있다. 왕릉과 왕비릉 모두 병풍석을 둘렀으며 12개의 난간석으로 연결되어 있다. 혼유석은 왕릉과 왕비릉에 각각 설치했다. 좌우측 무인석은 생강새가 다르다. 코에 붉은 빛이 돌고 투구와 인면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우측은 투구가 작고 이마 부분이 좁고 코가 둥글며, 턱과 양 볼이 튀어나와 있다. 태릉과 함께 사적 제201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313-19면적 1632.222㎡ (492376평).



강릉 난간석

성지순례 기도도량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0미터, 길이 1080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여러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십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웅,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담 법인 **대한불교 (禪) 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청동불상 제작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카타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양재역 10분거리, 망우역 10분거리, 서울역 10분거리, 양재역 10분거리, 양재역 10분거리, 양재역 10분거리